

해양수산부 -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취업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1 사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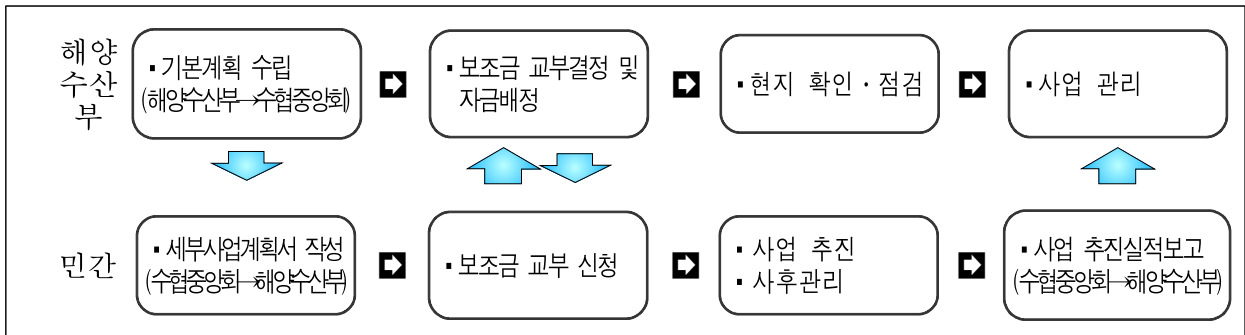
- ☐ (사업 목적) 어업인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정보(일자리, 교육, 복지 정책 등)를 제공하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내용) 일자리지원센터 8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8개소[중앙 1(수협중앙회), 지역 7(부산, 광주, 강릉, 보령, 포항, 전북, 제주)]
- ☐ (예산/재원) 373백만원('21년) / 농특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359	-	359 (100%)	373	14	3.9

- ☐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 (지원대상) 어업인, 수산분야 구인·구직자
 - 주요 대상이나 연령 구분없이 수산업 일자리를 희망하는 자에게 수협중앙회 어업인복지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여 일자리 지원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21년 예산은 373백만원으로 '20년 예산(359백만원) 대비 14백만원 증액(3.9%)되어, 지역센터 비정규직 직원의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2020년 참여자는 총 158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0.01%, 취업지원 유형 전체 참여자의 0.02%

- (성별) 본 사업 참여자 중 남성은 76.6%(121명), 여성은 22.8%(36명)로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
- (연령별) 본 사업의 참여자 중 중년이 57.0%(90명)로 가장 많고, 장년 19.6%(31명), 청년 19.0%(30명), 고령 3.8%(6명) 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58 (100)	121 (76.6)	36 (22.8)	30 (19.0)	90 (57.0)	31 (19.6)	6 (3.8)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고용서비스 전체	4.12	4.10	4.19	4.29	4.15	4.08	4.16	4.26	4.16	4.02
취업지원 전체	4.08	4.07	4.16	4.24	4.11	4.07	4.15	4.23	4.12	3.98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4.09	3.98	4.32	4.30	4.32	4.24	4.34	4.42	4.10	3.96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측면에서, 수산업 관련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성화되어 있으나, 사업목표 자체가 최근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기초한 사업으로서, 어업인에게 구인구직 정보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돕는 사업
- 수산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률 제고라는 목적하에 수산업 관련 기업과 구직자에게는 중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 사업만을 위한 법적근거는 취약한 편
-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이라기보다, 수산업종이라는 산업특성에 의해 나타난 만성적인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 일자리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이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시장의 상황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대상이 특정 보호계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수산업, 수산물가공업, 조선업 등의 방계분야를 포괄하면서 대상성이 모호해짐
- 수산업 관련 민간일자리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나, 임금수준이 낮고, 일자리정보 건수도 부정기적으로 게시하여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
- 전국단위 권역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며, 일자리정책에도 부합

* 온라인 홈페이지, 수협중앙회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7개소 운영 중

○ 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고, 예산 배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나, 외부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목표는 미달성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은 노동시장 여건,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이 사업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특정한 권역을 중심으로 어업인 및 방계 사업에 종사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
-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외부 상황에 대응하여 사업실적을 높이려고 했으나, 코로나 19로 계획 대비 실적은 미달성

* 2020년 목표치는 400건이었으나 171건 매칭 달성(43%)

○ 제도 개선 노력 측면에서, 전년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및 유관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지 않았고, 개선 이행계획 수립도 미비

- 전년도 일자리사업 평가에 지적된 부분(1인 직원체제, 사업비 집행의 비효율성, 사업 매뉴얼 부재, 참여자의 고용 불안정과 짧은 근속 기간 등)에 대한 개선은 미비한 편
- 국회 지적사항은 반영이 되었으나, 유관기관, 사업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된 내용들을 사업 개편을 위해 활용한 시도가 저조하고, 정책적인 개선 노력도 부족